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그 무렵 4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6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8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9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10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형제 여러분, 1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2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건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건디어 내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공지사항

- 지구를 지키기 위해 종이, 비닐, 캔, 패트병을 분리 배출해 봅시다.
- ▶ 남은 음료는 쓰레기통이 아닌 싱크대에 버려주시고, 종이컵도 흰색 쓰레기통에 모아 주십시오.
- ▶ 음식물이 묻지 않은 종이접시도 흰색 쓰레기통에 모아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08/10/2025)

- 미사 봉헌금: \$435.00(연중제19주일) | \$561.00(성모승천대축일)
- 교무금: 이영규(7-8), 장재원(8), 정소훈(8) | ▪ 감사헌금: 익명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례 봉사자

	연중제20주일(08/17)	연중제21주일(08/24)	연중제22주일(08/31)
해설	오미숙 말가리타	최낙현 미카엘	정석훈 마태오
독서	공성현 김양후	오미숙 이명희	박의현 성미용
복사	황시윤 바오로	이지향 다니엘라	박한주 미카엘
반주	공승윤 수산나	최아영 아녜스	최아영 아녜스
제대	공승윤 수산나	이명희 비비안나	조윤경 로사

August 17, 2025 연중 제20주일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히브 12,2).

Let us keep our eyes fixed on Jesus, the leader
and perfect of faith(Heb 12,2).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부터. 사제에게 요청하세요.